

# “황금빛 꿈에서 영혼을 품고 있는 시적 전주곡”

## <69> 쇼팽, 빗방울 전주곡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비’ 표현  
바흐의 ‘평균율’ 서 영감 받아  
유기적인 음악적 상상력 바탕  
많은 집중력과 음악성 요구해



프레데리크 쇼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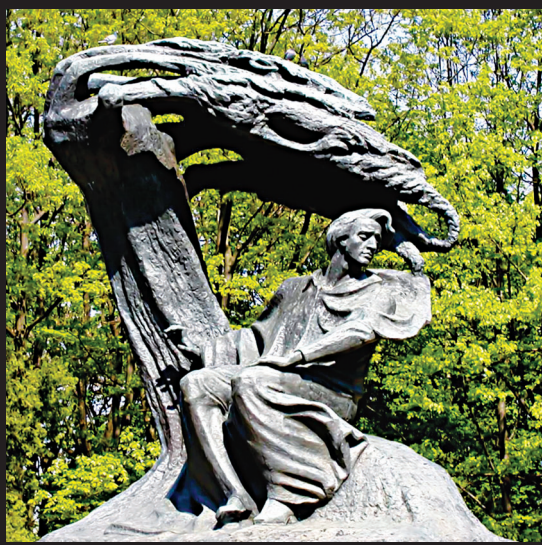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건강을 또 다른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과 은행의 담보대출을 걱정하기도 한다. 요즘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공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외에도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지난해 말 폭설과 기간이 비 소식이 있었지만, 해갈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광주시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수도 밸브 수압 저감,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변기 필 밸브 조절 등 생활 속 물 절약으로 가뭄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간이 내리는 단비가 반가운 요즘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들으며 비 소식을 기다려본다.

### ◇쇼팽 전주곡의 구성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은 스물여섯 곡의 전주곡(Prelude)을 완성했다. 이 중에서 작품 28(24곡)과 45(c#단조)는 독립된 전주곡으로 출판됐고, 내림 가장조 전주곡은 유작으로 세상에 나왔다. 특별히 작품 28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나란한조)가 연결돼 5도 상행순서(C장조/a단조, G장조/e단조, D장조/b단조순)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그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흐의 평균율(J.S. Bach,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s 1 & 2)’에서 영감을 받아 12개의 장조와 단조를 모두 모아 총 24개의 조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후대 독주악기의 전주곡이라는 독립적인 음악형식을 완성하고 드뷔시(C. Debussy), 라벨(M. Ravel), 라흐마니노프(S. Rachmaninoff), 스크리야빈(A. Scriabin),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 등에게 영향을 미치고 24곡의 전주곡이 완성됐다. 쇼팽 전주곡 작품 28의 총 연주 시간은 35분에서 40여분 정도로 소요된다. 각 곡은 길이가 짧지만, 유기적인 음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많은 집중력과 음악성을 요구하고 있다.

### ◇음악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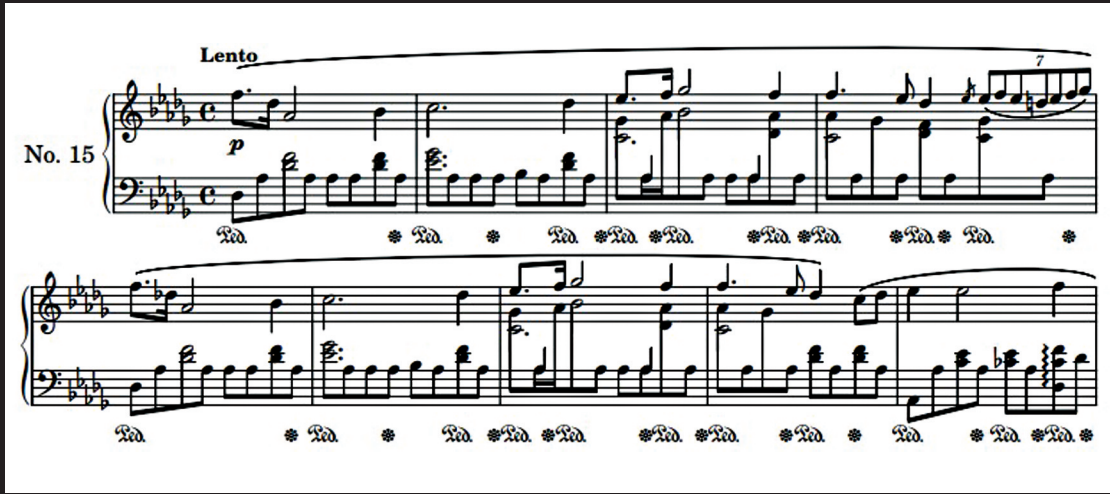
연주자들은 작품 24곡 또는 26곡 전체를 모두 연주하기도 하지만 리히터(Sviatoslav Richter)는 자신이 좋아하는 몇 곡을 간추려 종종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특별히 24곡은 짧게는 12마디(9번 E장조) 구성부터 4페이지 내외로 그의 피아노 음악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열다섯 번째 곡이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표제를 갖고,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슈만(R. Schumann)은 쇼팽의 전주곡에 대해 “나는 이 전주곡들이 낯설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들은 스케치, 연습곡의 시작, 또는 말하자면 폐허, 독립적인 독주리의 양쪽 날개의 묶음, 모든 무질서와 거친 혼란이 있다”라고 말했다. 리스트(F. Liszt)의 의견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쇼팽의 전주곡은 완전히 별개의 순서로 구성된 구성이다. 그들은 황금빛 꿈에서 영혼을 품고 있는 위대한 현



바르샤바의 쇼팽 기념비



쇼팽이 생전에 사용한 플레델피아노 (Pleyel piano)



쇼팽 전주곡 작품28-15 빗방울 전주곡 (앞부분)



쇼팽 전주곡 작품28-15 빗방울 전주곡 (중간부분)

대 시인의 것과 유사한 시적 전주곡이다”고 평가했다.

쇼팽의 24개 각각의 전주곡이 정확히 언제 작곡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쇼팽의 편지로 1836년부터 1938년까지 작곡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1839년 1월 요양차 방문한 스페인, 마요르카(Mallorca)섬에서 남은 전주곡 일부가 완성돼 1839년 9월 출판됐다.

### ◇빗방울 전주곡

A-B-A 형식의 벨칸토 아리아를 연상시킨다. 오르손의 서정적인 선율과 왼손의 반복적인 음(따이름 한소리인 A b음 또는 G#)이 마치 떨어지는 빗방울을 연상하며 등장한다. 선율과 구성은 마치 그의 녹턴처럼 들리기도 한다.

앞의 악보2와 같이 왼손에서 반복적인 ‘A b’ 음 음형은 자연스럽게 이명동음(enharmonic, 異名同音)인 오르손의 ‘G#’으로 옮겨져 조성을 ‘C#단조’로 조율감하고 있다. 저음의 선율은 앞의 서정적인 선율과 대조적으로 깊고,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 b’ 음이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고 해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공기, 햇빛, 그리고 바람과 같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서 의미와 가치를 잊고 살다, 가뭄으로 일기와 강우(降雨)에 대해 고민하는 요즘 물의 소중함과 주변 자연에 새삼 감사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아울러 내 주변에 계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드려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 조, 5사단·8사단  
군악대장 역임, 광주  
시립오페라단 운영실  
장 역임, 현 광주시립  
교향악단 운영실장.